

— Sun-155 —

관절염환자의 대체치료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영일*, 김현아

목적: 관절염환자의 대체치료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대체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한림대학교 의료원 류마티스내과를 방문한 126명의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나이, 성별, 가족사항, 가계수입, 직업, 교육정도), 관절염정보(유병기간, VAS score, ADL score), 1년간의 대체요법정보(종류, 횟수, 빈도, 계기, 이유, 지출정도, 부작용유무, 만족도, 효과, 의사와 상담여부 및 이유), 의료기관 이용실태(만족도, 병원방문횟수, 상담한 류마티스 전문의 수)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50.9 ± 12.6 세였고 남녀비가 1:3.3(남:29명, 여:97명)이었으며 류마티스관절염이 116명(92.1%), 퇴행성관절염이 5명(4%), 감작성척추염이 35(2.4%), 통풍과 루푸스가 각각 1명씩이었다.

결과: 126명의 환자 중 87명(69%)이 지난 1년동안 대체치료를 이용하였고 대체치료 중 침이나 뜸(52.9%), 한약(51.7%), 건강보조식품(24.1%)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대체치료의 이용횟수는 '1년에 6회이상'(40.3%)이 가장 많았고, 이용계기는 '친지소개'(44.7%), '자의로'(31.6%)순이었으며, 이용이유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라고 생각해서'(66.7%)가 가장 많았다. 대체치료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차도가 없다'(56.1%)나 '더 나빠졌다'(4.5%)는 환자가 60%이상이었다. 대체치료 이용에 대해 68.7%의 환자가 의사와 상의를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의사가 묻지 않아서'(35.9%), '말하기를 잊어서'(23.1%)순 이었다. 성별, 연령, 직업유무, 학력, 수입, 유병기간, VAS score, ADL score, 병원의 만족도, doctor shopping등의 요인들은 대체치료 이용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결론: 지난 1년간 관절염환자의 2/3이상이 대체치료를 이용하였고 그 중 60%이상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체치료의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특정한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 Sun-156 —

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으로 오인된 일차성 비후성 골관절병증 1예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안중경*, 전천홍, 고재현, 차훈식, 고은미

일차성 비후성 골관절병증은 경피골막증(pachydermoperiostosis) 또는 Touraine-Solente-Gole' 증후군이라 불린다. 이 질환은 곤봉 수지, 관상골의 골막증 그리고 얼굴, 두피, 팔, 다리의 피부 비후와 지루성 피부염을 특징으로 하며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기도 한다. 일차성 비후성 골관절병증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9배 정도 유병율이 높다. 보통 사춘기에 천천히 발병하여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두개 봉합 결손, 골수 부전, 비후성 위염 등의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국내에 보고된 예가 수차례 있다. 이 환자의 경우 말단 관절의 종창과 통증 그리고 요통 증상을 호소하였고 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으로 잘못 진단되어 치료 받은 병력이 있다. 젊은 나이에서 관절염의 감별 진단으로 일차성 비후성 골관절병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무릎 관절의 종창과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일차성 비후성 골관절병증 1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2세 남자 환자는 15세 경부터 외상 없이 무릎과 발목의 종창과 통증 그리고 요통이 발생하여 타병원을 방문하여 검진한 결과 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치료한 병력이 있다. 점차 사지 말단 부위로 종창과 통증이 진행하였고 특히 발목 주위 연부 조직의 종창(코끼리 발)과 곤봉 수지 소견을 보였으며 이 환자에서의 digital index는 11 이후 였다. 피부의 증식으로 인한 안면부의 주름, 안검의 비후, 얼굴과 등의 여드름상 발진, 다한증과 같은 선조직의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환자 가족력에서 작은 아버지가 곤봉 수지의 임상상을 보였다. 항핵 항체는 음성, 류마티스 인자는 정상하였고, 다른 혈액 검사에서도 정상이었다. 심장 초음파와 가슴 촬영은 정상이었다. 단순 촬영에서 대칭적으로 양쪽 손, 손목, 발, 발목, 경골 근위부 및 비골에서 불규칙적인 골막 반응과 연부 조직의 증대를 동반한 장골의 피질골이 두꺼워지는 소견을 보여 일차성 비후성 골관절병에 적합하였다. 동통이 있는 골관절병증에 대해 미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면서 증상 호전을 보였고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